

민 지 실	음 혜 천	<h1>BUDDHANARA</h1>	FAITH WISDOM ACTION
----------------------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 시 초하루 기도 및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 시 전법기도 법회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 2 시-4 시
Lucky Shoals Community Center (Community Room A), Lucky Shoals Park

새벽기도: 아침 6 시 30 분-7 시 (아침예불 및 참선)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사찰에서 아침공양을 제공 합니다.)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9am. (매주 토요일 9 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이달의 법구경

생사의 집을 짓는 사람을 찾아
나는 수없이 많은 윤회를 거듭했네.
죽음을 맞아야 하는 삶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마침내 나는 생사의 집을 짓는 사람을 찾았으니
니 집을 다시는 짓지 않아도 되리.
최악의 뗏목을 부수고, 무명의 돛대를 꺾었으니,
집착의 열기는 지난일이 되고
죽음을 가져오는 마음은 영원한 열반의 즐거움을
찾아가네

I have gone round in vain the cycles of many lives
Ever striving to find the builder of the house of
live and death. How great is the sorrow of life
that must die!
But now I have seen thee, housebuilder; never
more shalt thou build this house. The rafters of
sins are broken; the ridgepole of ignorance is
destroyed. The fever of craving is past: for my
mortal mind is gone to the joy of the immortal
NIRVANA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9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자승스님 제 33 대 조계종 총무원장 ‘당선’

- 290 표 획득...11 월 5 일 취임법회



제 32 대 총무원장 지관스님과 제 33 대 총무원장 당선인 자승스님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제 33 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기호 1 번 자승스님이 당선됐다. 자승스님은 오늘(10 월 22 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총무원장 선거에서 290 표(득표율 91.48%)를 얻어 새로운 총무원장으로 탄생했다. 이날 선거는 전체 선거인단 320 명 가운데 317 명이 투표했다. 나머지 후보인 기호 2 번 각명스님은 3 표, 기호 3 번 대우스님은 4 표를 얻었다. 기권은 6 표, 무효는 14 표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스님)는 개표를 완료한 직후 회의를 열어 최다 득표자인 자승스님을 당선인으로 확정했다. 총무원장 당선인 자승스님은 “오늘 총무원장으로 뽑아주신 선거인단 스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혼신을 다해 종단의 중흥 불사를 추진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선거장을 나온 총무원장 당선인 자승스님은 곧바로 조계사 대웅전에 들러 부처님 앞에 삼배했다. 이후 다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겨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 정식으로 인사했다.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총무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종도 모두가 서로를 믿고 복돋우며 한 마음으로 종단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격려했다. 이에 자승스님은 “32 대 집행부의 숙원사업을 이어받아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자승스님은 4 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선 소감과 향후 종단 운영방향 등에 관해 밝혔다.

스님은 당선소감문에서 “소납은 이번 선거를 통해 ‘종단의 변화와 합리적인 개혁’을 기대하는 종도들의 뜻과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며 “한국불교와 나아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종교지도자로서 종도들의 뜻과 의지를 겸허히 수렴하여 수행 중풍을 진작하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승스님은 내일(10 월 23 일) 오전 11 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원로회의에서 인준을 받으면 공식

취임한다. 임기는 오는 10 월 31 일부터다.

총무원장 당선인 자승스님은 1954 년생으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2 년 해인사에서 지관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 년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은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 10 대부터 14 대까지 중앙종회의원을 5 차례 지냈다. 제 14 대 전반기 중앙종회의장과 11 대 중앙종회 사무처장, 총무원 총무부장 및 재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제 33 대 총무원장 당선인 자승스님의 당선소감문 전문.

당 선 소 감 문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삼보(歸命三寶) 하옵니다.

존경하는 종정예하와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 원로대덕 큰스님 이하 제 33 대 총무원장 선거가 여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사부대중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소납은 이번 선거를 통해 ‘종단의 변화와 합리적인 개혁’을 기대하는 종도들의 뜻과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관행화된 종단 선거 문화를 혁신하고, 청정 종단의 위상에 맞는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를 치러냄으로써 종단과 나아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귀감을 남겼습니다.

저에게 문중과 교구를 떠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은 ‘안정과 화합’이라는 토대를 구축한 제 32 대 총무원을 계승하여 한국불교의 ‘도약과 중흥’이라는 결실을 맺으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삼을 것입니다. 한모금의 물을 마실 때에도 그 근원을 생각하라는 음수사원(飲水思源)의 고사를 거울삼아 임기 내내 저에게 맡겨주신 큰 책무의 근본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이어온 우리 조계종은 지금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과 가치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 소납은 한국불교와 나아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종교지도자로서 종도들의 뜻과 의지를 겸허히 수렴하여 수행 중풍을 진작하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동체대비(同體大悲)·자리아타(自利利他)의 부처님 정신을 적극 실천하여 고통 받고 소외된 우리 이웃과 사회를 향해 따뜻한 자비의 발걸음을 적극 내딛고 이를 통해 국민과 세계인의 존경과 신뢰를 이끌어내도록 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외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 4년 동안 종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신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이 하 종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종무행정의 공백과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계승 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경제과 관심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3년 10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33대 총무원장 당선자 자승 합장

“결계·포살, 위대한 유산으로 계승하길” 총무원장 지관스님 퇴임인터뷰



제 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지난 20일 불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년간을 회고하며 주요 정책들을 설명했다.

“대중공의의 원용살림이 수행되는 큰절의 큰대중이 불교중흥의 핵심”

- 행정수반으로서 종도·사회구성원 관심사 살핀 기회
- 4대 비전 정책기조로 종풍진작·수행승가 진흥 힘써
- 결계 포살 여법하게 회복...좋은 전통 계승하길 기대

불교신문은 지난 20일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모시고 퇴임을 앞둔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인터뷰는 총무원장 스님과 불교신문사 사장 선묵스님 간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인터뷰에서 “수행과 전법으로 정진하는 조계종을 발원하며 ‘종풍진작과 수행승가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대중공의의 원용살림이 수행되는 큰 절의 큰 대중이 불교중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10월 30일을 끝으로 4년간의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퇴임을 앞둔 소회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소회는 없습니다. 종무원들과 종도들의 성원에 무사히 소임을 마쳤습니다. 사회와 시대가 바뀔 만큼 불교도들의 역할과 위상도 매우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종무행정의 수반으로서 종도들의 다양한 활동영역과 사회구성원들이 불교에 바라는 특별한 관심사 등을 가까이 살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간에서 자비를 실현한다는 일은 복잡한 인연을 통찰하고 공감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 제 32대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는 ‘수행과 전법으로 정진하는 조계종’이었습니다. 캐치프레이즈에 부합하는 정책 집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32대 집행부의 성과에 대해 총평해주셨으면 합니다.

“32대 집행부는 ‘수행과 전법으로 정진하는 조계종’을 발원으로 ‘종풍진작과 수행승가 진흥’, ‘대중원용살림 회복’, ‘전법과 복지 진흥’, ‘사회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수행승가’를 4대 비전으로 정하여 매년 사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4대 비전을 정책기조로 하여 ‘대중결계와 포살’시행, ‘조계종 조선양사업’, ‘봉암사결사 60주년 기념사업’과 ‘유교법회 회고’ 등 ‘종풍진작과 수행승가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중원용 살림’을 위한 노력과 사찰부동산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하였고, 교구본사주지회의, 중앙종회 등 종단의 주요 의사결정 단위에서 활발한 정책토론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법과 복지 진흥’을 위해서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 자비나눔운동과 공익기부재단 설립 등에서 성과를 내었습니다. ‘수행종풍 사회화와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해서 종교평화 활동, 템플스테이 활성화, 전통사상서 간행, 스리랑카복지타운 준공, 신계사복원불사 완공 등의 불사를 마무리 하였고, 한국불교중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법회관 건립, 조계사 시민선원 건립,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와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건립을 완료했으며, 내년도 전반기에 국제선센터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 지난 정책들을 살펴보면 안으로는 교단의 안정을 기하고 밖으로는 불교계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내실외장(內實外剛)의 기조였다고 봅니다. 먼저 대내적으로 종단 정체성 확립과 수행종풍 진작을 위한 결계 및 포살이 그것입니다. 결계포살을 강조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신(物神)의 풍요 속에 고군분투하는 승가대중들의 자존(自存)과 정체(正體)를 실답게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자타(自他)가 상극(相剋)하고 경쟁(競爭)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불화(不和)와 분쟁(紛爭)의 세계 속에서 고통 받는 우리국민과 지구촌 중생들에게도, 화쟁(和諍)과 공생(共生)의 수승한 전통을 회복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요익중생(饒益衆生)의 본분사(本分事)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화합승가(和合僧伽)의 기본조건은 구성원의 한계(限界)를 정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결계(結果)와 서로 합의약속(合議約束)하며 참회 반성하는 학처(學處)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포살(布薩)입니다. 한국불교 수행승가에서는 이미 수행해오던 오래된 유산이며, 지금도 강원, 선원, 총림 등의 대중승가(大衆僧伽)에서는 잘 전승(傳承)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승가구성원들의 대사회적 역할과 위상(位相)이 다양하게 분화(分化)된 현실에서는, 많은 구성원들이 부득이 대중과 함께하는 공주(共住)의 경계(境界)를 벗어나 불안정(不安定)한 수행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율장(律藏)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수구성원(小數構成員)들이 시공간(時空間)의 제약(制約)으로 인해 대중회의(大衆會議)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여야만 여법한 대중공의제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정하여 구성원들의 공의를 모으는 결계는 교단초기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결계와 포살은 모든 대중이 공화(共和)를 수행하는 승가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여법(如法)하게 회복하는 일이며, 나아가 떳떳하고 위대한 공동체전통(共同體傳統)의 수행승가를 중흥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종도들이 힘을 다하여 자신들의 위대한 유산으로 계승해 가리라 기대합니다.”

〈2008년 하안거와 동안거 대중결계록 등재 현황〉

구분	등재인원	비고
08년 하안거	8,859명(63.9%)	총 재적승려수 13,860명 (60세 이상은 규정에서 제외됨)
08년 동안거	8,781명(63.3%)	총 재적승려수 13,860명

-종단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재조명하는 <표준 금강경> 편찬도 종단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물로 평가됩니다. 표준 금강경의 편찬 이유와 더불어 앞으로 어떻게 쓰여야 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찬 경위를 살펴보면 조계종 중흥에는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다양한 이역본이 존재하고, 구마라집 역본만 봐도 여러 판본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던 <금강경>은 누가 어떤 근거로 교감한 경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종단에서는 고려대장경 판본을 저본으로 하되 범본과 여러 이역본을 대조하여 종단 표준 한문본을 만들었습니다.

경전의 활용방안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흔히 ‘신수봉행(信受奉行)’이라고 말하듯이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고, 그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경전의 활용입니다. 다만 모든 종도들이 종단본 <금강경>을 신수봉행할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하는 것이 종단의 임무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종단에서는 조계종 산하 전국 사암에 공문을 발송하여 종단본 <금강경>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사찰과 수행단체 등에 꾸준히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에서 법요집에 표준 <금강경>을 게재하겠다고 신청해 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무료로 게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탑, 사적비 건립 등 조계사 성역화 불사를 비롯해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국제선센터 등 종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대작불사들이 이미 회향됐거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작불사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종단의 의행이 커진 만큼 내실도 한 단계 도약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계사 성역화 사업은 한국불교 1번지로서의 사격을 갖추고 수행과 전법의 중심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시민선원 건립, 진신사리탑과 사적비 건립 및 조계사 주변의 토지 매입 등 주목할 만한 추진사항입니다. 조계사 성역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또 다른 사업으로는 지난 2006년 11월에 원담스님 주지 때 ‘조계사 대웅전 삼존불봉안과 일주문을 건립하였고, 2009년 8월에는 ‘조계사 8각 10층 진신 사리탑’ 과 ‘조계사 사적비’ 등을 조성·건립하였습니다. 조계종의 포교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순수 종비로 건립된 ‘전법회관’, 한국불교문화의 진수를 대중화하기 위한 종합센터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전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시작한 각종 연수 시설을 구비한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한국불교 세계화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제선센터’, 간화선 등 수행 체험의 장이 될 ‘조계사 시민선원’, 불교문화의 정수를 대중에게 회향하고 보전·계승하는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사업 등의 목적불사와 한국불교 1번지인 조계사의 80여년 사적을 정리하여 비를 세운 뜻이 모두 종도와 대중들의 내면을 충실히 채우는 정신의 불사를 목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각각의 불사들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진행된 만큼 불사 원력에 맞게 운영된다면 종단 내외적으로 많은 성과가 회향되리라 봅니다. 향후에는 이를 운영할 인재를 육성하고 각종 콘텐츠를 구축하여 불자와 대중이 함께 하는 정법의 활달한 광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봉암사 결사60주년 기념법회와 유교법회 조명 등을 통해 지난날 선배스님들의 투철한 수행정신과 원용가풍을 되돌아보고 제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스스로 참회하고 자정을 선언하면서 다른 종교의 모범이 돼기도 하였습니다.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 한다는 종지에 걸맞게 종단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늘 강조하지만 한국불교의 승가전통은 아시아 불교국 나아가 세계불교계를 통틀어 돌아봐도 자랑할 만한 공동체유산입니다. 5~6세기 수승한 대중교학유통기를 거쳐 9세기 이후 활달한 선문의 중흥을 이룩하였고 조선조를 지나 일제강점기와 근대 서세동점의 폭풍우 속에서도 부종수교(扶宗樹敎)하는 종지전통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유래없이 전승된 공동체 전통은 앞으로도 인류사회사에 특별한 의미로 재해석 되리라 여깁니다. 문제는 삼장수학(三藏修學)과 삼학수습(三學修習)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륜론 삼장과 선문(禪門)의 수행전통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조사들의 소중한 경험입니다. 유산으로 남겨진 전통을 공부하고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간의 정보만큼이나 삼학의 정보도 충실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의 토대는 처음도 마지막도 대중공동체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대중공의의 원용살림이 수행되는 큰 절의 큰 대중이 불교중흥(佛敎中興)의

핵심(核心)입니다. 불교는 누가 뭐라 해도 스승과 제자가 서로 섬기고 아끼는 전통에서 꽃을 피울 수 밖에 없습니다. 용상(龍象)의 대덕들은 용상대덕(龍象大德)의 숲에서 자라납니다.”

- **지난해 8.27 범불교도대회는 말 그대로 모든 불교도가 한데 모여 종교편향을 근절하고 사회정의 실현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법회로 평가됩니다. 총무원장 스님께서 바라보는 범불교도대회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범불교도대회의 의의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교문제로 인한 우리사회의 갈등해소에 불교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데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불교의 자주권 수호를 위해 역사상 초유로 불교계 모든 종단과 단체가 힘을 모은 대회였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종교편향의 문제가 어찌되면 불교만의 문제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것은 불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는 고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에 의한 종교적 편견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권력 또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종교갈등은 국민통합과 사회안정에 매우 위험한 요소입니다. 종교분쟁은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신념을 강요하거나 정신의 자유를 훼손하는 사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누구라도 그 사회의 악덕을 정화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범불교도대회의 성공적 회향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는 등 현 정부의 종교편향적 정책이 어느 정도 누그러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아직까지 종교편향 및 차별 사건이 간간히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종교 간 평등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와 불교계가 해야 할 일에 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범불교도대회 이후 정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에 의한 종교편향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초기에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종교편향 사건들이 발생하였다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등에 의한 종교편향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선 정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종교편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은 특강위주로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의 강좌를 부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정규 교육과정으로 신설하여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불교는 지난 2008년에 가졌던 종교편향 근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교편향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정교분리의 문제라든가 사립학교 종교교육의 문제 등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 **최근 종단의 핵심 현안은 '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구역 해제'입니다. 그간 종단은 공원구역 내 사찰에 대한 관리권과 사유권을 지키고 보다 바람직한 문화유산 보존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많은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7.2 본말사주지 결의대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전통사찰보존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개정 등 각종 불교규제 법령이 개선됐으나 아직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단 자주권 수호를 위해 후임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종단에서는 그동안 전통사찰보존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0.27 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산지관리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의 법령을 제.개정하여 유례없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등 종단의 자주권과 관리권을 침해하고 수행과 종교활동을 제약하는 법률들을 개정하거나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7월 2일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기 위한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국립공원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집행부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지난 4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유산지역보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재 환경부에서는 우리 종단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공원별 해제사찰과 면적을 도면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과 대응활동은 33대 집행부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을 설립하는 등 자비나눔사업이 어느 집행부보다 활발하게 전개됐습니다. 자비나눔사업의 의의는 무엇이며 향후 이를 더욱 폭넓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기부재단이 작년 9월 창립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1 배-100 원모금, 한끼나누기, 자비연꽃 달기, 희망의 등달기 등의 나눔운동 펼쳐 9월말 기준으로 9억 5천만원에 이르는 자비나눔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가정, 실직가정, 다문화가정에게 긴급생활비, 치료비, 학자금, 쌀, 연탄 등의 지원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자비나눔사업에 동참해 주신 스님들과 불자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아래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계층간의 갈등은 심화되어 불안과 원망은 높아지고, 이웃 간의 정은 줄어들고 가치와 양심이 외면당하는 등,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벗어나 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동행(同行)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자와 국민들이 공동의 사회를 내 가정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섬길 때 동행의 삶은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과 권리인 동행을 대승행자인 우리 종도들이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사회가 불교는 참 좋은 교단이라는 칭송과 격려를 아낌없이 선사할 것입니다.”

-스리랑카 복지타운을 준공하고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을 추진하는 등 한국불교의 세계화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셨습니다. 국력이 크게 성장되면서 한국불교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한국불교의 면면을 알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해외 포교원력을 가진 우수한 승가인력의 육성이 이뤄져야 합니다. 교학과 수행이 갖춰지고 해당국가의 언어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포교에 대한 정책마련과 실행의지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의 뒷받침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통사상서 번역 등은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한국학 및 불교학필드 그리고 지식구축공간에 공급하는 장기적인 전장에서 수행하는 토대사업입니다. 한국불교를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홍보자료들은 더욱 제작·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열의를 갖고 추진했던 사업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임기 중에 못다 이뤄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세간에 머물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특별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면 후회나 아쉬움은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특별히 역경에 부딪혔던 시기가 있으셨습니까. 아울러 총무원장으로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셨는지요

“총무원 그리고 중도들의 열정과 속 깊은 대중들이 함께 하였기에 추억할 만한 역경은 생각나지 않네요.”

-중임에 나서지 않던 4년 임기를 온전히 마치고 물러나시는 유일한 총무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만으로도 중단이 매우 안정됐음을 시사하는 반증이라는 의견이 많습니. 일각에서 제기된 것처럼 총무원장 재임에는 전혀 뜻이 없으셨는지요. 아울러 중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중도들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재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추호도 없었습니다. 각자 본분에 충실하면 모든 일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출가공동체인 승가대중에게 있어 활달하고 역동적인 대중이 바로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러려면 사자(師資) 간에 섬기고 도반(道伴) 간에 아끼며 대중을 중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자와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법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행무상의 이치를 깊이 깨달아 부지런히 각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곧 정진이요, 공덕을 짓는 것이며, 단상을 제거하는 길입니다.”

[불교신문 2570 호 기사에서 발췌]

구원의 관세음보살, 수행의 관세음보살

천수경은 조선 성종 7년(1476)에 최초로 간행된 '천수천안광대원만무에대비심대다라니경'이 그 모체가 된다고 하는데, 원래의 경명은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에대비심대다라니경'이라 하여 이름이 꽤 깁니다. 천수경의 핵심은 '신묘장구대다라니'입니다. 이 다라니 전 후로 발원, 찬탄, 참회, 귀의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상은 경명이 뜻하듯이 천 개의 손과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구하는 것입니다.

관음은 관세음의 준말인데, 관음 신앙이란 관세음보살의 광대한 위신력에 의지하는 불교 신앙의 대표적 형태입니다.

관세음의 어원은 Avalokitesvara 로, '세간을 관하여 보는 신' 또는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자'의 뜻이며, 관세음, 관자재, 광세음, 관세음자재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즉,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고통받는 중생들의 소리를 관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보살을 뜻합니다. 천수경의 본래 이름인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에대비심대다라니경'의 천수천안이란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중생의 고통을 보고 즉시 구원한다는 대자대비의 면모를 잘 나타낸 것입니다. 이 관음 신앙의 기원은 서력 기원 전의 일로 추정되는데, 1세기 경에 성립된 화엄경 입법계품에 53선지식 중 하나로 이미 관자재보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법화경에 관세음보살보문품, 능엄경 권 6에도 관세음보살과 관음여래 등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관음 신앙이 유포되었고, 의상 스님이 화엄 사상과 더불어 관음 신앙의 틀을 이루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절 이름 중 '관음사'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또한 기도 도량으로서 '관음도량'이 가장 많은데, 양양의 낙산사와 강화 보문사, 남해 보리암이 삼대 관음도량으로 불리울 정도로 관음 신앙은 한국 불교의 모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법화경을 소의경전(최고의 경전으로 의지함)으로 삼는 천태사상도 결국은 관음 신앙이 발전해 나간 것입니다.

이제는 경전에 나타난 관음 신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이 품만을 독립해 '관세음보살보문품경' 이라고도 합니다)에 그 공덕을 보면,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만약 큰 불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니, 이 보살의 위엄과神通력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고,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마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표류하였을 적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두 나찰의 난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이름 하나니라. 를 비롯해 관세음보살의 중생 구제를 위한 '32 가지의 다른 모습인' 32 응신應身을 등장시키는데, 이에 대해 능엄경 권 6 을 보면, 그때에 관세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생각해 보니 옛날 수없이 많은 항하사 겁 이전 어느 때에 어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 이름이 관세음 보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처님으로 인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었더니 그 부처님께서 저를 가르치시되 듣는 것으로부터 생각하고 닦아서 삼매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가운데에 흐름에 들어가되, 처소가 없어서 들어간 곳이 이미 고요해져서 움직이고, 고요한 두 모양이 또렷이 생기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이 점점 더해져 듣는 놈과 들을 대상이 다 끊어지며, 듣는 놈이 다 끊어진 것도 머물지 아니하여, 깨닫는 놈과 깨달을 대상이 공허하였으며, 공허한 깨달음이 아주 원만하여 공한 것도 공할 것도 없어졌더니, 나고 없어짐이 이미 끊어진지라, 끊어져 고요함이 앞에 나타나더이다.

홀연히 세간과 출세간을 초월하여 시방이 원만하게 밝아져서 두 가지 수승함을 얻었으니, 하나는 위로 시방에 모든 부처님의 본각本覺인 오묘한 마음을 합하여 부처님의 인자하신 힘과 동일하게 된 것이고, 둘째는 아래로 시방의 여섯 갈래의 모든 중생과 합하여 중생으로 더불어 자비심과 그 바람이 동일합니다. 로 시작해 14 가지 두려움 없는 공덕을 설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은 대자비로써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로서의 관세음보살, 즉 세간의(世)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音)를 듣는(觀) 존재를 묘사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컫는 이가 있으면'이라 했습니다. 반면 능엄경은 수행자로서의 관세음보살, 즉 세간의(世) 모든 소리(音)를 듣는(觀) 존재를 묘사하며, '듣는 놈과 들을 대상이 다 끊어지며 듣는 놈이 다 끊어진 것도 머물지 아니하여'(이근원통耳根圓通)라 했습니다. 이 둘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일심으로 관세음의 명호를 부르면 소원을 들어 준다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말하는 신앙적 측면의 관세음보살 이나, 원각경의 관세음보살같이 수행해야 한다는 깨달음의 관세음보살이나 양쪽 모두 다 우리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이번에 법보시로 받으시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일심으로 독경하시고 사경도 하셔서 소원성취들 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경

법화경』 전 7 권 28 품 가운데 제 7 권 25 품인 『관세음보살보문품』이 하나의 독립된 경으로 유행되어 온 관음신앙의 대표적 경전이다.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던 중 제 24 「묘음보살품」을 말씀하시고나자 무진의보살이 부처님께 관세음보살의 인연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을 권청한 것이 이 경을 설하게 된 계기이다.

『법화경』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단일경으로 처음 유포하게 된 것은 중국 서진때 달마라 참이 병에 든 하서왕에게 관세음보살이 이 국토와 인연이 있으니 보문품을 외우라고 권하자 이경을 읽고 건강을 회복한 왕이 이 보문품만을 따로 단행본으로 하여 널리 유통시면서 『관음경』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관음신앙은 어떤 신앙보다도 따뜻한 대자대비의 절대구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에서 헤매이는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으며 때문에 불교신앙에 있어서 관음신앙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왔고 관음신앙의 주된 경전으로서 『관음경』의 유포는 다른 경보다도 제일을 차지하게 되었다.

① 관세음보살의 위신력

그 때 무진의(無盡意)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어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쭙었다.

"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 선남자야,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의 중생이 여러가지 고뇌를 받을 때에 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케 하느니라. 만일 어떤 이가 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그는 혹시 큰 불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관세음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며, 혹은 큰 물에 떠내려 가게 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며, 혹은 백천만의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마노. 산호. 호박. 진주 같은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일어 그들의 배가 나찰귀들의 나라에 포착되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만일 한 사람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 사람들이 다 나찰의 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만일 해를 당하게 되었을지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이나 막대기가 곧 조각조각 부러져 능히 벗어날 수 있으며, 혹은 삼천대천 국토에 가득한 야차. 나찰들이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려 하더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여러 아귀가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겠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고통이 손발에 채워지고 몸이 묶였을지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이것들이 다 끊어지고 풀어져 곧 벗어나리라. 만일 또 삼천대천 국토에 원적(怨賊)이 가득찬 곳을 한 상인의 우두머리가 여러 상인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가진채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선남자들이여,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라. 그대들은 진심으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를지니라.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 주리니, 그대들이 이 이름을 부르면 이 원적들을 무사히 벗어나리라'하고, 이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 보살'하면 곧 그 난을 벗어나리라.

무진의야, 관세음 보살마하살의 위신력이 이와 같이 훌륭하니라. 또 만일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관세음 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되며, 혹은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그 마음을 여일 수 있으며, 혹은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관세음 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그 어리석음을 여일 것이니라.

무진의야, 관세음 보살이 이런 위신력으로 이롭게 함이 많으니 중생은 마땅히 마음으로 항상 생각할 것이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위하여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면 곧 복덕과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게 되고, 만일 딸 낳기를 원한다면 곧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 딸을 낳게 되리니, 덕의 근본을 잘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 만일 또 중생이 관세음 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중생이 모두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들어야 하느니라. "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②관음신앙

관세음보살의 위와 같은 광대한 위신력에 의지한 것이 관음신앙이다. 어원은 Avalokitesvara 로 '세간을 관하여 보는 신' 또는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자'의 뜻으로 관세음, 관자재, 광세음, 관세음자재, 광세음대세지대사, 관음대사 등으로 불린다. 즉, 세상의 고통받는 중생들의 소리를 관하고 여기에 응답하는 구제자를 말한다. 특히 관세음보살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천수천안이다. 천개의 손과 천개의 얼굴로 중생의 고통을 보고 즉시 구원한다는 구제자의 면모를 잘 나타낸다. 관음신앙의 기원은 서력기원 전의 일로 추정되며 1세기경에 성립된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53 선지식 중 하나로 등장한다. 이와 더불어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능엄경> 등에서 관음신앙의 초기형태를 알 수 있고, 1세기 경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관음보살상이 인도 간다라 지방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이들 경전이 번역되면서 관음신앙이 민간에 전래되었고, 천태교학의 전개와 더불어 더욱 확산되었다. 이러한 영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관음신앙이 유포되었다.

특히 강원도 낙산사를 비롯하여 전국 도처에 이름난 관음기도도량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고 있는 천수경이 바로 관음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미루어 보아 일반 불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분이 아니까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현재 기도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손꼽히는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다.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 새로운 법회장소는 Lucky Shoals Community Center(Community Room A), Lucky Shoals Park, 4651 Britt Rd, Norcross, GA 30071 입니다.
- “관세음보살 보문품경” 독경본 및 사경책이 법보시가 들어왔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지역과 애틀랜타 지역에 살고 계신 신도님들에게는 법보시책 독경본과 사경본을 11월 법회때 나눠드리고, 타 지역에 살고 계신 신도님들에게는 12월에 2010년 달력과 함께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11월 15일 주지 선각스님이 불교 세미나 발표로 시카고로 가시는 관계로 셋째주 일요일 정기법회는 신도님들이 중심이 되서 법회를 합니다. 이날 기초 교리 공부에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둘째주 애틀랜타 야외법회를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Fort Yargo State Park 파빌리온에서 성황리에 갖었습니다. 진수성찬을 준비해 주신 이호임 불자님 과 신도님들, 바비큐 요리를 담당해주신 조남국 거사님, 사회를 멋지게 해주신 무영 김동하 거사님 의 동참해 주신 모든 신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그동안 사찰을 방문하셨던 정토사 주지 선오스님 과 지상스님이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선오스님의 마음을 밝혀주는 법문 감사 드립니다. 한국에 방문하실 기회가 주어지면 충남 소개 백련이 아름다운 절 정토사를 꼭 방문해 달라는 선오스님의 부탁입니다. 특별히 부다나라 신도님들의 사찰 방문을 환영하십니다. 그리고 지상스님은 종교비자가 나올때까지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머무십니다.
- 2010년 달력불사를 받습니다. 불광출판사에서 달력 400부를 프린트하는 비용 및 신도님 가정으로 발송비용 등 제반비용이 약 \$1,000.00 이 소요 됩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은 부다나라 (불국사) 나 한국 부다나라 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인등기도 동참을 기다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분사 석가 모니불.

2010년 달력 불사 (필요 예산: \$1,000.00): 문수지 권효정 \$250.00, 인범 김종환 \$100.00, 무량화 문봉순 \$100.00, 청운화 Woojin Robinson \$50.00

관세음보살 보문품경 (사경본 및 독송본): 문수지 권효정, 김태희, 정명자, 조화숙 등 의 다수 동참자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팀장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